



◆ 미 수은, 중국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해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제공

미국 수출입은행은 지난 9월 중국의 광둥성 난하이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을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. 이 석유화학 단지는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남부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, 연간 80만톤 규모의 에틸렌 분해반응설비(ethylene cracker), 제품처리설비 그리고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.

이 사업에는 총 44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24억 5천만 달러를 국제상업은행과 미 수은 등 5개의

수출신용기관(ECA)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지원하게 된다. 미 수은이 지원하는 1억 8천만 달러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EPC를 담당하게 될 Bechtel의 기자재 및 용역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.

이번 지원은 미 수은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민간 주도의 대형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를 가진다.

【임 천 일】